

공관서 병행 본문 번역에서 형식 일치와 내용 동등성의 조화

-『표준새번역』과 『새번역』을 중심으로-

김재성*

1. 시작하는 말

1993년에 나온 『표준』의 머리말에서는 번역의 원칙에 대해 이렇게 밝히고 있다.

“성경을 번역하는 원칙에는, 원문의 문법 형식을 번역문에서도 그대로 반영시키는 형식 일치 번역과, 원문이 지닌 문법 형식보다는 원문의 뜻을 옮기는 내용 동등성 번역이 있다. 두 가지 번역 방법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는 것이 『표준새번역』 번역자들의 바람이었지만, 실제 번역 과정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다.”

형식 일치 번역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개역』을¹⁾, 내용 동등성 번역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공동』을²⁾ 들 수 있을 것이다.³⁾

『표준』은 두 가지 방법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번역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두 가지 방법 사이에서 선택을 하여야 했다.

* 한신대학교 교수, 신약학.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1) 개역위원회의 6 가지 성서 번역 원리들 가운데는, “... 번역은 그 수용언어가 허락하는 한 가능한 대로 축자적(逐字的)이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나채운, 『우리말 성경연구』, 기독교문사, 1990, 341-342).
- 2) 『공동번역』 성서 머리말에서, 번역의 원칙에 대하여, “축자적 번역이나 형식적인 일치(Formal Correspondence)를 피하고 내용의 동등성(Dynamic Equivalence)을 취한다”고 밝히고 있다.
- 3) 형식일치의 번역과 내용동등성의 번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민영진, “표준 새번역은 원문을 우리 어법에 맞게 표현한다”,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자료집), 1993, 대한성서공회, 170-176; 민영진, “우리말 성경의 번역성격과 대표적인 번역 이론들”, 『그 말씀』(1993, 8), 120-125; 조지훈, “성서 번역자 양성 과정을 위한 제안”, 『성경원문연구』 12(2003, 2), 124-127; 나채운, “표준새번역에 대한 바른 이해(1)”, 『기독교사상』(1993,10), 110-114 등을 참조하라.
- 4) 김창락은 이렇게 평가한다. “『개역』은 직역에 가깝고 『공동번역』은 의역에 치중했습니다. 『표준새번역』은 지나친 직역과 지나친 의역 둘 모두를 피하면서 직역과 의역을 적절하게 절충하는 중간 노선을 택하려 했다고 하셨습니다.”(김창락,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은 어떤 성경인가?”, 『성서읽기 역사읽기』, (한국신학연구소 1999), 165.

“『표준새번역』에서는 원문의 뜻을 우리의 어법에 맞게 표현하려 하였다. 그래서 형식을 일치시키는 번역을 해도 우리의 어법에 맞고 원문과 똑같은 뜻을 전달할 수 있을 때에는 그렇게 번역을 하였고,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전혀 딴 뜻이 전달되거나 아무런 뜻도 없는 번역이 될 때에는 뜻을 살리는 번역을 하였다.”

큰 방향에서 『표준』은, 우리의 어법에 맞는 표현, 즉 내용 동등성 번역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형식 일치 번역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형식 일치 번역을 해도 우리의 어법에 맞으면 그때는 형식 일치 번역을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이러한 방침은 2001년에 나온 『새번역』⁵⁾의 머리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될 수 있는 대로 번역어투를 없애고, 뜻을 우리말로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중요한 본문에서는 우리말 표현보다는 원문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번역어투를 없애고, 뜻을 우리말로 표현하려고 한 것은 내용 동등성의 번역을 더욱 강화하였다는 뜻일 것이다.⁶⁾ 그러나 신학적으로 중요한 본문에서는 우리말 표현보다는 원문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려고 한 것은 역시 부분적으로 형식 일치의 번역을 유지하여 절충하는 입장이라 하겠다. 내용 동등성과 형식 일치 외에도 신학적 중요성, 즉 신학적 해석의 측면도 고려한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개역』은 형식 일치를 위해서 때로는 어색한 우리말 표현도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표현이 어색하고 딱딱한 곳들이 많다. 반면에 『공동』은 형식을 지나치게 무시하여 주석이나 성서연구에서는 참고서 정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표준』과 『새번역』이 내용 동등성 번역이나 형식 일치 번역 가운데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두 가지 번역 방법의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리려고 시도한 것은 큰 의의가 있으며 바람직하다 하겠다.

이 글에서는 『표준』과 『새번역』에서 제시한 이러한 목표가 어느 정도 성취되었는지, 공관복음서 병행 본문들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들에 기초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분석 작업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먼저, 공관서 병렬본문들을 그리스어 본문

5) 대한성서공회에서는 『성경전서표준새번역개정판』(2001)의 이름을 2004년 9월부터 『성경전서 새번역』으로 줄여서 사용하고 있다.

6) 민영진은 이 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번역 본문에서 번역어투를 없애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말 관용구를 활용한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서 원문을 읽는 독자의 반응과 번역문을 읽는 독자의 반응이 같아지도록 한다는 의지도 반영된 것이다. 민영진, “성경 새번역 이렇게 하였다”, 『월간목회』(1991. 1), 172.

과 『표준』과 『새번역』 본문을 나란히 놓고서, 그리스어 본문에서 일치된 것들이 두 번역 본문에서 어느 정도 유지되거나 또는 바뀌었는지 대조해 보았다. 그런 다음에, 중복되거나 두드러지는 몇 가지 주제들로 제목을 정하고 그 제목 아래로 대조 작업을 한 본문들을 재배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아래에서 별도로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모두 『표준』 본문들이다.

2. 단어를 첨가하거나 삭제한 경우들

『표준』의 공관서 병렬본문들을 대조해볼 때, 번역자가 임의로 그리스어 본문에 없는 단어를 첨가하거나 그리스어 본문에 있는 단어를 삭제하는 경우들이 있다. 아래의 대조에서 밑줄과 굵은체로 표시한 단어들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러한 첨가나 삭제는 번역 작업에서 때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여기에 열거한 것들은, 그러한 첨가나 삭제가 다른 병행 본문들에서는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다. 괄호()안의 성서구절은 병행본문이다.

첨가한 경우들

- ① “너희는 속으로 **주제**님께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마 3:9)
- ②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새번역』 마 7:7)
- ③ “넘겨 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막 14:11)
- ④ “자기 옷을 찢고, **큰소리로**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마 26:65)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제**’”(막 14:63-64)
- ⑤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마 9:25)
- ⑥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새번역』 눅 7:22)
- ⑦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눅 7:22)

①, ②, ③, ④, ⑤, ⑥, ⑦의 병행본문들(눅 3:8; 눅 11:9; 마 26:15; 막 14:63; 막 5:42; 눅 7:22; 마 11:5)에는, 굵은체로 표시한 단어들이 나오지 않는다. 이것들은 모두 그리스어 본문에 없는 단어들을 번역자가 임의로 첨가한 경우들이다.

④에서, 마태 그리스어 본문에는 ‘방금’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단어(*νῦν*)가 있지만, 마가 그리스어 본문에는 이것이 없다. 마가 본문에 나오는 ‘이제’는 첨가된 것이며, 이는 병행 마태 본문에 동화된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삭제한 경우들

- ① “안드레가 (εις τὴν θάλασσαν)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마 4:18)
- ② “구하여라, (καὶ) 주실 것이요, 찾아라, (καὶ)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καὶ) 열어 주실 것이다.”(마 7:7)
- ③ “(σοί)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막 5:7)

①의 그리스어 본문에서는, 그물을 던지는 장소로 ‘바다에’(εις τὴν θάλασσαν)가 제시되어 있지만, 번역 본문에서는 삭제되었다. 병행 마가 그리스어 본문에도 ‘ἐν τῇ θαλάσῃ’가 있는데 본문에서는 이를 삭제하지 않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막 1:16)로 번역하였다.

②의 그리스어 본문은 병행 그리스어 본문(눅 11:9)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마태 본문에서는 ‘καὶ’를 번역하지 않았다. 그러나 누가 본문에서는 ‘καὶ’를 모두 ‘**그러면**’으로 번역하였다.⁷⁾

③에서는 그리스어 본문에 있는 ‘σοί’를 번역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태 병행 본문에서는 이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마 8:29)로 번역하였다.

이러한 예들에서 보듯이, 『표준』에서 번역자들은 형식의 일치에 구애받지 않고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어 본문에 없는 단어들을 임의로 첨가하기도 하고 있는 단어들을 임의로 삭제하기도 하였다. 굵은 글씨로 표시한 단어들이 적절히 첨가 또는 삭제된 것인지는 매 경우마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예로 든 경우들은 대개 번역된 본문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첨가 또는 삭제한 경우들이며, 이는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병행 본문이 같은 맥락인데도 번역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르게 번역한 것은 어색해 보인다. 이런 경우 번역자들이 의논하여 한글 의미 표현상 어떤 단어를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면 번역문을 일치시키고 합의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두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석적 연구를 하는 이들을 위하여 그리스 원문과 다르게 첨가 또는 삭제된 경우는 해당 단어에 난하주를 달아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존대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

7) 『새번역』 마태, 누가에서는 공히 ‘καὶ’를 ‘**그러하면**’으로 번역하였다.

그리스어에서는 높임말과 낮춤말의 구분이 없으며, 이는 우리말 번역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우리말 번역에서 어떤 경우에 높임말을 쓰고 어떤 경우에 낮춤말을 써야 할지 어떤 원칙과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채운은 『신약전서 새번역』(1967)의 경어법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1) 『신약전서 새번역』의 경어법은 『개역』에서보다 예수의 지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2) 예수의 말씀은 『개역』에서와 같이 『신약전서 새번역』에서도 상대방이 누구임을 막론하고 언제나 비어체로 일관해 있다. 3) 제자들 상호간의 말이 『개역』에서는 평어체였던 것이 『신약전서 새번역』에서는 경어체로 바뀌었다. 4) 제자와 무리 사이의 말은 『개역』에서는 상호간 평어를 썼으나 『신약전서 새번역』에서는 경어를 썼다. 5) 세례요한이 무리에게 한 말에는 『신약전서 새번역』에서 경어체와 비어체의 두 가지가 있어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⁸⁾

이러한 존대법 문제는 『표준』과 『새번역』에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세례 요한과 관련하여

① “불에 태우실 것이다.”(마 3:12) / “태우실 것입니다.”(눅 3:17)

②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마 3:7)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눅 3:7)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눅 3:16)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막 1:7)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요 1:20)

①에서, 『표준』과 『새번역』은 공히, 세례 요한의 말을 마태 본문에서는 높임말을 쓰고 누가 본문에서는 낮춤말을 쓰고 있다. 같은 높임말이라도 『표준』에서는 ‘…입니다’ 체로 『새번역』에서는 ‘…이오’ 체로 다르게 되어 있다.

②에서, 마태 본문에서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한 말이고, 누가 본문에서는 무리에게 한 말인데, 모두 낮춤말로 되어 있다. 그런데 마가 본문에서

8) 나채운, 『우리말 성경연구』, 292-294.

김창락은 예수의 말씀뿐 아니라 바울의 말씀에서도 존대법이 문제가 됨을 지적하고 있다. “바울 서신을 하대체로 번역해야 하느냐 존대체로 번역해야 하느냐는 문제는 지금까지도 의견이 양쪽으로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표준』과 『공동번역』은 존대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도 존대체로 번역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 맞느냐는 반론이 제기됩니다.”(김창락,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은 어떤 성경인가?”, 167).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한 말은 높임말로 되어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

바리새파나 율법학자 또는 사두개파 등 예수의 적대자로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세례 요한은 낮춤말을 했을까? 당시 사회에서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는 성전 종교의 관장세력이었다. 사두개파는 귀족이었으며 율법학자들과 함께 국민의회를 장악하고 있었다. 누구라도 그들에게 낮춤말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더군다나 그들이 악할지라도,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마 3:7) 요한이 낮춤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다.

특히 누가 본문에서, 무리, 세리, 군인 등에게 세례 요한이 한 말(7-14절)은 낮춤말로 되어 있는 반면, 백성 또는 모든 사람에게 한 말(16-17절)은 높임말로 되어 있다. 더욱이 요한복음의 병행 본문(요 1:19-23)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한 세례 요한의 말이 모두 높임말로 되어 있다. 이는 마치 세례 요한이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사람이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낮춤말을 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많은 대중 앞에서는 높임말을 쓴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이는 그리스어 본문에서 의도하지 않은 신학적 해석을 집어넣은 것이 될 수 있다. ‘무리’(οἱ ὄχλοι)는 민중신학 같은 데서 매우 중요시하는 개념이며, 백성보다 무리가 예수운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한다.⁹⁾ 이러한 관점에서는, 세례 요한이 백성에게는 높임말을 사용하고 무리에게는 낮춤말을 사용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수와 관련하여

①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마 9:11) / “음식을 먹습니까?”(막 2:16) / “먹고 마시는 거요?”(눅 5:30)

②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마 11:3; 『새번역』마 11:3)

“오신다는 분이 선생님이십니까?”(눅 7:20)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¹⁰⁾(『새번역』눅 7:19)

③ “예수께서 요한을 두고 무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였다[새번역: 말씀하셨다]”(마 11:7)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눅 7:24)

9) 안병무, “예수와 오클로스”, NCC신학연구위원회 편, 『민중과 한국신학』(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2), 86-97 참조.

10) 『새번역』 누가 본문 19, 20절에서는, 종전과 달리 주어와 보어를 바꾸어서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로 번역하였다. 이는 그리스어 본문의 주어와 보어 순서와 일치한다. 그러나 『새번역』 마태 본문 3절에서는 종전과 같은 주어와 보어 순서를 유지하고 있다.

복음서들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예수를 제외하고는 대개 낮춤말을 쓰고 있다(요 7:45-49, 9:24). 그들이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으므로 그럴 수 있다 하겠다.

①에서, 세 본문들에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한 말이 모두 높임말로 되어 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의 제자들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의 사회적 지위는 평범하거나 낮은 것이었다. 그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높임말을 사용했을 가능성은 낮다 하겠다.

또 이 세 본문들이 사용한 높임말들은 그 뉘앙스가 약간씩 다르다. ‘먹고 마시는 거요?’ 보다는 ‘음식을 드시오?’가 또 ‘음식을 드시오?’ 보다는 ‘음식을 먹습니까?’가 좀 더 정중한 느낌이 든다. 말하는 주체와 대상이 동일하므로 될 수 있으면 높임말의 수준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②에서, ‘오실 그분’(ὁ ἐρχόμενος)은 메시아적 칭호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전문용어이다.¹¹⁾ 이 단어가 누가 본문 19절과 20절에서 각각 나오는데, 19절에서는 ‘오실 그분’으로, 20절에서는 ‘오신다는 분’으로 각각 다르게 번역하였다. ‘오실 그분’이 메시아적 칭호라면, ‘오신다는 분’으로 번역하는 것은 약간 어색하다. 이는 묻는 이가 소문으로 들은 것을 의심쩍어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이다.

우리말 표현에서는, 메시아적 존재에 대한 존칭으로는 ‘당신’보다는 ‘선생님’이 더 자연스럽다 하겠다.¹²⁾ 그러나 『표준』과 『새번역』에서는 ‘당신’과 ‘선생님’을 섞어서 쓰고 있다.

『새번역』 본문들은 ‘당신이십니까? / 그분입니까?’에서 존대법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표준』에서는 ‘이십니까?’로 일치된 것이다. 메시아적인 분에 대한 존대법이라면 ‘이십니까?’ 형식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③에서, 마 11:7의 ‘말씀하기 시작하셨다’(ἤρξατο λέγειν)라는 구절은, 『개역』에서는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존칭어미가 중복된 어색한 표현이다. 『표준』에서는 ‘말씀하시기 시작하였다’로 번역하여 훨씬 더 자연스런 우리말 표현이 되었다. 하지만 똑같은 형식의 그리스어 본문을 다른 곳에

11) 이는 이어서 나오는 그의 일에서 알 수 있다. 즉 “눈먼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슴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이는 메시아적 존재임에 틀림없다. 좀 더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안병무, 『갈릴래아의 예수』(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36-40을 참조하라.

12) 손윗사람을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에 대해서는, 전무용, “성서 번역자가 알아야 할 한국어 문법”, 『성경원문연구』 15(2004), 60-62; 전무용, “한국어 성경의 대명사 고찰”, 『성경원문연구』 19(2006), 109-113을 참조하라.

서는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눅 11:29, 막 12:1)로 다르게 번역하였다. 이 두 가지 형식 가운데서는 후자가 더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이다.¹³⁾ 후자의 형식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 마태복음 11:7의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를 누가복음 7:24에서는 ‘말씀하셨다’로 번역하여 형식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작하였다’(ἤρξατο)라는 분명한 의미를 갖는 단어를 임의로 삭제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단어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 그것과 연관된 동작이 단순히 일어난 것을 의미하지만, 사용된 경우, 그 동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¹⁴⁾

존대법이 일치하지 않는 그 밖의 본문들에 대해서는 <존대법이 일치하지 않는 본문들 목록>¹⁵⁾을 참조하라. 존대법 문제는 그리스어 본문과는 무관한 것이며, 우리말 표현의 일관성과 신학적 해석과 관련된 것이다. 특히 공관서 병행본문들 안에서 존대법이 서로 다르게 사용되는 것은 문제가 된다 할 것이다.

예수의 말씀을 낮춤말로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은 당시 사회의 상황의 맥락에서는 어색할 수 있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적 위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우리말 어법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정서적, 전통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말씀하시기 시작하였다/ 말씀하기 시작하셨다’와 같은 불일치는 그런 문제와 무관한 것이며, 우리말 어법에 맞는 쪽으로 일치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들이다.

세례 요한의 말은 우리 어법과 당시 사회 상황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대한 신학적 해석 등을 고려하여 존대법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것 또한 병행 본문에서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 인용문 형식이 다른 경우들

같은 그리스어 인용문 유형이 우리말 번역에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다르게 번역되었는데¹⁶⁾, 그 유형들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13) 강정희, “외국인과 해외동포를 위한 성경 번역에 대한 제안”, 『제4회 성서 번역 워크숍』(자료집),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9), 275-277 참조.

14) 『새번역』에서는, 이 두 구절을 모두 ‘말씀하셨다’로 번역하여 일단 형식은 일치되었다. 그러나 똑같은 그리스어 본문(ἤρξατο λέγειν)을 막 12:1, 눅 11:29 등에서는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로 번역하고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

15) 김재성, “공관서 병행 본문 번역에서 형식 일치와 내용 동등성의 조화”, 『제4회 성서 번역 워크숍 자료집』(서울: 대한성서공회, 2009), 216.

16) 김창락은,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에 대해 다루면서, “복음서를 번역하는 데 부닥친 어려움의

A형: P는 말하기를 “...” 하였다.	A-1형: P는 말하기를 “...” 하고 말하였다.
B형: P는 말하였다. “...”	
C형: P는 “...” 하고 말하였다.	C-1형: P는 “...” 하였다.

예를 들어서 공관서 병행 본문 몇 개를 이 유형들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 하녀가 말하기를 ‘당신도 ... 사람이지요?’ 하였다.”(마 26:69)(A)
 “그를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 사람이지요?’”(막 14:67)(B)
 “노려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도 ... 있었어요’ 하였다.”(눅 22:56)(A)

“다른 하녀가 ‘이 사람은 ... 사람입니다’ 하였다.”(마 26:71)(C-1)
 “그 하녀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한패입니다’ 하였다.”(막 14:69)(A)

“너희가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고 말할 그 때까지”(마 23:39)(C)
 “너희가 말하기를 ‘복되시다’ 하고 말할 그 때가”(눅 13:35)(A-1)
 “너희가 말하기를 ‘복되시다’ 할 그 때”(『새번역』 눅 13:35)(A)

인용문 형식이 다른, 그 밖의 병행 본문들에 대해서는 <인용문 형식이 다른 경우들>17)을 참조하라.

위의 예문들에서 보듯이 다섯 가지 인용문 형식들이 어떤 원칙이 없이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병행 본문들에서도 대부분 서로 다른 인용문 형식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형식이 사용된 것도, 대개는 그리스어 본문과는 별 상관 없이, 번역자의 번역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A와 A-1 형식은 비교적 예스러운 표현을 좋아하는 번역자들에게 맞는 형식이다. C와 C-1 형식이 긴 이야기체 문장을 좋아하는 번역자에게 어울리는 것이라면, B는 단문 형식의 분명한 문체를 좋아하는 번역자에게 어울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스어 본문이나 영어 번역들은 대개 “아무개가 말하였다. ‘... .’”의 형식인데, 이는 B형식에 근접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말 번역에 이런 형식을

하나는 우리말에서 직접 인용문을 도입하는 여러 가지 구문(構文) 형식이 아직도 정형화되지 못한 점이다”고 밝히고 있다(김창락,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은 어떤 성경인가?”, 167; 『표준』에서 사용된 인용법, 특히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문제에 대해서는, 전무용,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의 우리말을 다듬으면서”, 『기독교사상』(1993년 2월), 83-85를 참조하라.

17) 김재성, “공관서 병행 본문 번역에서 형식 일치와 내용 동등성의 조화”, 216-218.

확일적으로 일치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현재의 상태처럼 아무런 원칙 없이 자유롭게 다양한 형식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떤 원칙을 정하여 일관성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현대의 젊은 독자들을 고려하여, 예스런 표현인 A, A-1 형식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다음의 예문의 경우는 ‘말하기를’과 ‘말할’이 두 번이나 사용되어서 어색함의 극치를 보인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 복되시다’ 하고 **말할** 그 때가 오기까지”(눅 13:35)(A-1)

이 예문에서와 같이, 같은 의미의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문장을 조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말하기를 … 하였다’(A, A-1) 형식이나 ‘하고 말하였다’(C) 형식도 구어 형식일 뿐이며, ‘하였다’와 ‘말하였다’가 의미상 중복되므로 어색한 표현을 만들 수 있다.

이보다는 “아무개는 말하였다. ‘ … .’”(B) 형식이나 “아무개는 ‘ … ’ 하였다”(C-1) 형식이, 그리스어 본문과도 일치할 뿐 아니라, 깔끔한 우리말 문장을 만드는 데 어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번역자의 특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확일적으로 일치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병렬 본문의 경우는 번역자들이 협의하여 최대한 형식을 일치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5. 병렬 본문에 동화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들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¹⁸⁾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를 터인데!’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마 9:20-21)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를 터인데!’ 하고 생각 했던 것이다”[새번역: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¹⁹⁾(막 5:27-28)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18) 마태와 누가의 밑줄 친 부분의 그리스어 본문은 정확하게 일치한다. 마태 본문에서는 그리스어 본문에 없는 ‘**예수께로**’가 **첨가**되었다.

19) 마가 본문 28절만 괄호 안에 들어 있다. 그리스어 본문에는 괄호가 없다. 『표준』 일러두기에서는 “주석적 성격을 지닌 본문이나 문맥의 흐름을 끊는 본문은 소괄호() 속에 넣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 의미라면 마태본문 21절도 **소괄호** 속에 넣어야 할 것이다.

그쳤다.”(눅 8:44)

마가 본문 28절에서 ‘생각 했던 것이다’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ἐλεγευ)는 본래 ‘말했다[말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마태의 그리스어 본문은 ‘속으로 말했다’(ἐλεγευ ἐν ἑαυτῇ)로 되어 있는데, ‘속으로’(ἐν ἑαυτῇ) 때문에 ἐλεγευ을 ‘생각했다’로 의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가 본문에는 ‘속으로’(ἐν ἑαυτῇ)가 없다. 그런데도 마태 본문과 같이 ‘생각했던 것이다’로 번역한 것은 마태 본문에 동화된 것일 수 있다.

그 여자의 그러한 말이 속 생각일 경우와 입으로 발설된 말일 경우 그 의미는 달라질 것이다. 속 생각은 생각일 뿐이지만 입으로 나온 말은 행동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뒤에 나오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예수의 칭찬도 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마음속 생각에 대한 칭찬이지만, 후자의 경우 입으로 말하고 손을 뻗은 행동에 대한 칭찬이 된다. 또, 믿음의 의미도 달라지게 된다. 전자는 믿음이 속으로 확신하는 것이 되고, 후자의 경우는 입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된다.

마가 본문 28절의 번역에서 ‘생각했던 것이다’와 ‘말했다[말하고 있었다]’ 가운데 선택하는 것은 번역자의 몫이라 하겠다. 전자가 자연스런 우리말 표현을 선택한 것이라면 후자는 형식의 일치와 주석적 의미를 고려한 것이라 하겠다. 우리말 번역은 대개 전자를 택하였다. 『개역』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라고 다소 모호하게 번역하였다. 『새번역』에서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를 택하고 난하주에서 “그, ‘말하고’”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한 쪽을 선택하되 주석자를 위해서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알려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²⁰⁾

그 밖의 예들에 대해서는 <병렬 본문에 동화된 것으로 보이는 본문들>을 참조하라.²¹⁾

6. 시제나 태가 바뀐 경우들

① “고라신아, 화가 있다. 뱃새다야, 화가 있다.”(마 11:21)

“고라신아, 화가 있을 것이다! 뱃새다야, 화가 있을 것이다!”(눅

20) 영어번역들은 대개 “she said”(KJV, ASV, RSV)를 택했지만, “she said to herself”(CEV)나 “she had said to herself”(NEV)를 택한 것들도 있다. 어느 경우에도 said 대신에 thought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21) 김재성, “공관서 병행 본문 번역에서 형식 일치와 내용 동등성의 조화”, 219.

10:13)

- ② “나무는 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마 3:10)
 “나무는 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눅 3:9)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새번역』 마 3:10)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새번역』 눅 3:9)
- ③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새번역』 마 3:12)
 “손에 키를 들었으니”(『새번역』 눅 3:17)

①의 눅 10:13에서, ‘화가 있을 것이다’의 그리스어 본문(οὐαί σοι)은 미래 시제가 아닌데 미래 시제로 번역하였다. 이는 미래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 대한 심판이므로 마태 본문처럼 ‘화가 있다’ 형식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②의 그리스어 본문들은 정확하게 일치한다. 『표준』에서 그리스어 본문과 똑같이 수동태 형식으로 번역한 것을 『새번역』에서는 능동태 형식으로 바꾸었다.

그리스어 본문에서 현재 시제인 것(βάλλεται)을, 『새번역』 마태 본문에서는 문맥의 의미를 고려하여, 미래 시제로 바꾸었다. 미래 시제로 바꾼 것은 좋으나, 누가 본문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미래 시제로 일치시키면 좋을 것이다.

③의 누가 본문에서, ‘들었으니’는 본래 그리스어 본문에서는 동사가 없고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ἐν)만 있어서 그저 ‘있다’(에이미 동사)는 의미 정도가 함축되어 있다 하겠다.²²⁾ 『새번역』 마태 본문에서는 ‘들고 있으니’로 현재진행형의 의미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누가 본문은 종전대로 두어서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스어 본문과의 획일적인 형식일치를 고집하지 않고,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로 바꾸거나, 현재 시제를 미래로 또는 현재 진행형으로 바꾸는 것 등은, 좀 더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을 만드는 데 공헌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병렬 본문들을 각각 태가 다르거나 시제가 다르게 번역하는 것은 좀 어색해 보인다. 역시 번역자들의 협의를 거쳐서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7. 서로 다르게 번역된 경우들

아래에 열거하는 병렬 본문들은 그리스어 본문은 거의 일치하지만 번역 본문들에서 서로 다르게 번역된 경우들이다. 주목하여 비교할 부분은 밑줄을 쳐서 표

22) 영어번역에서 RSV는 ‘is’ 를 KJV은 ‘[is]’ 를 넣어서 ‘있다’는 의미만 살렸다. 즉 손에 키가 ‘있다’는 뜻이니 우리말로는 ‘손에 키가 있으니’ 또는 ‘손에 키를 들었으니’ 정도면 될 것이다.

시하였다.

①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새번역: 나왔을 때에] 쉴 곳을 찾아서,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고,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말한 후에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 있고, 말끔히 청소되어 있었고,²³⁾ 잘 정돈되어 있었다”(마 12:43-44)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아서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찾지 못하면, 그 때에 그 귀신은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 귀신이 돌아와서 보면, 그 집은 말끔히 청소되고, 잘 정돈되어 있다”(눅 11:24-25)

② “겉옷을 길에다가 뒀으며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르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마 21:8-9)

“겉옷을 길에다 뒀으며,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어라!²⁴⁾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막 11:8-10)

③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 두고[새번역: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마 4:20-22)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 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막 1:18-20)

④ “등불을 켜서 뒷박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마 5:15)

“뒷박 아래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놓아 두어서”(눅 11:33)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새번역』 마 5:15)

“[말 아래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 두어서”(『새번역』 눅 11:33)

①의 병렬본문들에서, 그리스어 본문은 몇몇 단어를 제외하고는 거의 같은데, 마태와 누가 본문이 많이 다르게 번역되었다. 누가에서는, 이 문단 처음에 나오는, 가정법을 동반하는 부사(“Οταν”)의 의미를 살려서, ‘나온다고 하면’으로 번역

23) ‘청소되어 있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와 ‘청소되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두 본문은 형식이 다르다. 전자는 ‘있었다’라는 과거형을 매번 사용하지만 후자는 맨 마지막에 한번만 사용하고 있다. 후자가 더 자연스런 우리말 표현이라 하겠다.

24) 같은 그리스어 단어(Ευλογημένος)를 ‘복되시다/ 복되어라’로 다르게 번역하였다. 이어 나오는 ‘다윗의 나라여!’도 어색하다. 이런 형식을 사용한다면 같은 마가 본문 바로 앞 절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시는 분!’으로 번역하고 있다. 누가 본문에서도 ‘임금님이여!’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지만 ‘임금님!’으로 번역하였다. ‘…이여’ 형식은 옛스런 표현이므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는데, 마태에서는 똑같은 부사가 나오는데도 단순히 ‘나와’로 번역하였다. 이 문단에서 가정법 시제가 사용된 것은 그 상황을 가정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태 본문은 이런 가정법의 의미 대신에 사실 묘사인 듯한 느낌을 준다. 누가 본문이 그리스어 본문의 내용이나 형식에 더 가까운 번역이라 하겠다.²⁵⁾

②의 마태 본문 9절에서, 앞 선 사람은 무리가 맞지만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냥 ‘따라오는 사람들’(οἱ ἀκολουθοῦντες)이다. 그런데 이 단어를 ‘무리’로 변경하였다. 마가 본문에서는 그리스어 본문대로 ‘뒤따르는 사람들’로 되어 있다. 이는 바로 앞에서 무리라는 단어가 없이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태에서는 앞에 무리라는 단어가 나오므로 ‘따라오는 사람들’을 당연히 ‘뒤따르는 무리’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무리’(οἱ ὄχλοι)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어이므로, 이렇게 임의로 단어를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환호성 부분에서, 그리스어본문은 마태와 마가가 거의 일치한다. 그런데 마태 본문은 한 문장으로 하여 인용부도 한번만 붙이고, 마가 본문은 문장마다 따로 떼어 인용부를 붙였다. 마가 본문에서 단어마다 따로 떼어 인용부를 붙인 것은 어색해 보인다. 또 ‘호산나’ 다음에 오는 부호도, 마태 본문에서는 쉼표나 느낌표를 붙였고, 누가 본문에서는 모두 느낌표를 붙였는데,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

③에서는, 같은 그리스어 단어(ἀφέντες)이지만 목적어가 1) 사물인 경우 2) 사물과 사람인 경우 3) 사람들인 경우를 고려하여 각각 1) 버리고 2) 버려두고/ 놓아두고 3) 남겨두고 등으로 번역하였다. 『개역』에서는 네 곳을 모두 ‘버려두고’로 번역하였는데, 사람이 목적어인 경우와 사물이 목적어인 경우를 구분하지 않아서 어색한 느낌이 든다. 이에 비하면, 『표준』과 『새번역』은 우리말 표현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살려서 잘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²⁶⁾

④의 그리스어 본문들에서는 한 절에 하나의 동사만(τιθέασιν/ 눅: τίθησιν) 사용되었지만, 우리말의 특성상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한 번은 긍정으로 한 번은 부정으로 번역하게 된다. 이 경우, ‘두지 않고 … 둔다’나 ‘놓지 않고 … 놓는다’ 식으로, 부정어를 제외한 동사를 일치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위의 본문들은 같은 단어를 ‘둔다’, ‘놓다’, ‘내려놓다’, ‘놓아둔다’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하였고, 같은 절 안에서도 ‘놓다/ 놓아둔다’, ‘내려놓다/ 놓아둔다’, ‘놓다/ 놓아 두다’ 식으로 다르게 번역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함으로써,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지루함을 없애 주었다 하겠다.

그밖에 약간씩 다르게 번역된 본문들에 대해서는 <그 밖의 본문들>²⁷⁾을 참조

25) 『새번역』 마태 본문에서는 ‘나왔을 때에’로 번역하여 가정법의 의미를 살렸는데 이는 잘 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누가 본문은 그대로 두어서 여전히 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

26) 『새번역』 마 4:22에서 ‘버려 두고’ 대신에 ‘놓아두고’를 택한 것도 사물과 사람을 동시에 목적으로 쓰는 경우에 더 어울린다 하겠다.

하라.

이와 같이, 같은 그리스어 본문들이 번역 병렬 본문들에서는 매우 다양하게 번역되었다. 여기에 어떤 원칙을 정하여 병렬 본문들을 획일적으로 일치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표준』 머리말에서 밝힌 대로, “형식을 일치시키는 번역을 해도 우리의 어법에 맞고 원문과 똑같은 뜻을 전달할 수 있을 때에는” 형식을 일치시키는 번역으로 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예들을 보면, 병렬 본문들이 일치되지 않는 것들은 거의 다, 우리 어법과는 관계가 없으며, 번역을 분담한 번역자들이 일치 노력을 하지 않고 각자의 문체로 번역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개성을 살리는 것은 좋지만, 개성을 살리면서도 일치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들은 번역자들의 협의를 거쳐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개인의 개성이나 우리말 표현과는 관계 없이, 거의 기계적으로 일치시킬 수 있는, 사소하게 불일치하는 것들이 많다. 그 목록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그 밖의 사소한 불일치 목록들

‘...’/ ‘...서’	
가운데/ 가운데서(막 12:23/ 마 22:28, 눅 20:33) 농고서/ 농고(막 1:26/ 눅 4:35) 말하고/ 말하고서(마 26:49/ 막 14:45) 머물러/ 머물러서(마 26:38/ 막 14:34) 버리고/ 버리고서(마 19:27, 막 10:28/ 눅 18:28)	보내어/ 보내서(마 11:2/ 눅 7:18) 부르고/ 부르고서(마 26:30/ 막 14:26) 사람에게/ 사람에게서(마 10:22/ 막 13:13) 일구하고 / 일구어서, (마 21:33/ 막 12:1) 지어/ 지어서(마 17:4/ 막 9:5, 눅 9:33)

‘하여’/ ‘해’	
기도해라/ 기도하여라(마 26:41/ 막 14:38, 눅 22:46) 안심해라/ 안심하여라(마 14:27/ 막 6:50) 해주기를/ 하여 주기를 ²⁸⁾ (마 20:32, 눅 18:41/ 막 10:51)	행하였더라면/ 행했더라면(마 11:21/ 눅 10:13) 해주십시오/ 하여 주십시오(마 20:21/ 막 10:37 ; 마 20:33, 눅 18:41/ 막 10:51)

27) 김재성, “공관서 병행 본문 번역에서 형식 일치와 내용 동등성의 조화”, 223-225.

‘나의’/ ‘내’ 또는 ‘너의’/ ‘네’	
나의/ 내(마 12:48-50/ 막 3:33-35/ 눅 8:21 ; 마 24:33, 막 13:29/ 눅 21:31) 너에게/ 네게(막 10:51/ 눅 18:41)	나의 피/ 내 피(마 26:28, 막 14:24/ 눅 22:20)

‘...은’/ ‘...이’	
그들은/ 그들이(마 21:27/막 11:33) 사람이/ 사람은(막 14:12/ 눅 22:12)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마 3:9/ 눅 3:8)

‘...’/ ‘...는’	
그 때에/그 때에는(마 24:15, 눅 21:21/ 막 13:14) 다가와서/ 다가와서는(마 9:20/ 눅 8:44)	예수께서는/ 예수께서(마 4:7/ 눅 4:12 ; 눅 8:55/ 막 5:43 ; 마 16:24, 눅 9:23/ 막 8:34)

기타	
거슬러/ 맞서(마 24:7/ 막 13:8, 눅 21:10) 그 동생/ 그의 동생(마 4:18/막 1:16; 마 4:21/ 막 1:19) 그리하면/ 그러면(마 19:21, 막 10:21/ 눅 18:22) 그의 길/ 그 길(마 3:3; 막 1:3/눅 3:4) 나왔다/ 병이 나왔다(마 14:36/ 막 6:56) 내가/ 나는(마 4:19/ 막 1:17) 닥쳐올/ 다가올(마 3:7 / 눅 3:7) 따라오너라/ 따라오라(마 16:24/ 막 8:34, 눅 9:23) 모두/ 다(막 12:23/ 마 22:28, 눅 20:33) 세어 놓고/ 세고(마 10:30/ 눅 12:7) 악해도/ 악할지라도(마 7:11/ 눅 11:13) 온 줄/ 온 줄로(마 24:35, 막 13:31/ 눅	구하고자/ 구하려고(마 16:25, 막 8:35/ 눅 9:24) 그러면/ 그렇다면(마 19:25/ 막 10:26/ 눅 18:26) 그의 길/ 그 길(마 3:3, 막 1:3/ 눅 3:4) 길에다가/ 길에다(마 21:7, 눅 19:36/ 막 11:7) 내 사랑방/ 그 방(막 14:14/ 눅 22:11) 내가/ 나는(『새번역』 마4:19/ 『새번역』 막 1:17) 돌들에게/ 돌더러(마 4:3/ 눅 4:3) 만날 것/ 볼 것(마 28:7/ 막 16:7) 선한 일/ 착한 일(막 3:4/ 눅 6:9) 십니다/ 이십니다(마 16:16, 눅 9:20/ 막 8:29) 여기저기서/ 여기저기에서(마 24:6/ 막 13:7)

28) 『표준』에서 준말과 본디말을 혼용하여 쓰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전무용, “『성경전서표준새번역』의 우리말을 다듬으면서”, 75-76을 참조하라.

21:33) 자기/ 그(마 18:6/ 막 9:42) 편이 낫다/ 것이 낫다(마 18:6-9, 막 9:42/ 막 9:43-47)	인지/ 인지를(막 1:24/ 눅 4:34) 제/ 자기(마 16:24/ 막 8:34, 눅 9:23) 표적들/ 표징들(마 24:24/ 막 13:22)
--	---

심표를 쓰거나 쓰지 않은 경우 ²⁹⁾	
가운데서/ 가운데서,(마 11:11/ 눅 7:28) 곳에서/ 곳에서,(마 21:9/ 막 11:10) 그가/ 그가,(마 27:42/ 막 15:31) 그런데/ 그런데,(마 17:2/ 막 9:2) 너희는/ 너희는,(마 20:22/ 막 10:38) 다음에, /다음에(막 14:223; 눅 22:17) 당신들은, / 당신들은(마 26:64/ 막 14:62) 떨어져서/ 떨어져서,(마 26:58/ 막 14:54) 믿는/ 믿는,(마 18:6/ 막 9:42) 불어도 /불어도,(마 11:17/ 눅 7:32) 손님들이/ 손님들이,(마 9:15/ 막 2:19) 와서, /와서(마 19:21, 막 10:21/ 눅 18:22) 있었는데/ 있었는데,(막 1:23/ 눅 4:33) 하시고/ 하시고,(마 26:36/ 막14:32)	것과/ 것과,(마 26:64/ 막 14:62) 곳에서/ 곳에서,(마 21:9/막 11:10) 그러면/ 그러면,(마 16:15, 눅 9:20/ 막 8:29) 그리하여, / 그리하여(막 14:16/ 눅 22:13) 누구든지 / 누구든지,(마 16:24, 눅 9:23/ 막 8:34) 다하고/ 다하고,(마 22:37, 눅 10:27/ 막 12:30) 뒤집어쓰고, / 뒤집어쓰고 앉아 (마 11:21/ 눅 10:14) 몇이/ 몇이,(마 27:47/ 막 15:35) 보고서, /보고서 (막 14:67/ 눅 22:58) 사람들은, / 사람들은(막 13:26/ 눅 21:27) 앞에서/ 앞에서,(마 17:2/ 막 9:2) 일구하고 / 일구어서,(마 21:33/ 막 12:1) 하는데, / 하는데(마 26:17/ 막 14:12)

느낌표를 쓰거나 쓰지 않은 경우	
복되시다!/ 복되시다(마 23:39/ 눅 13:35) 복종하는구나! / 복종하는구나(막 1:27/ 눅 4:36)	아버지/아버지! (마 11:25/ 눅 10:21) 하였더냐!/ 하였더냐?(마 23:37/ 눅 13:34)

29) 『표준』에서는 심표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강단에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때에, 끊어서 읽어야 할 곳을 정확하게 끊어서 읽지 못함으로써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전무용,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의 우리말을 다듬으면서”, 81-82).

띄어쓰기가 다르게 된 경우	
둘러 앉으시고/ 둘러앉으시고(마 21:12/ 막 11:15) 해주시시오/ 하여 주십시오(마 20:21/ 막 10:37)	해 달라고/ 해달라고(마 14:36/ 막 6:56)

그 밖에 <소제목 난하주 등이 다른 경우들>의 목록³⁰⁾도 참조하라.

8. 맺음말

『표준』과 『새번역』은 머리말에서 밝힌 대로 형식 일치 번역과 내용 동등성 번역 가운데 어느 한쪽을 택하지 않고, 두 가지 방법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은 버리려고 하였다. 하지만 실제 번역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었을 때는 내용 동등성 번역 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어법에 맞고 원문과 똑같은 뜻을 전달할 수 있을 때에는 형식 일치의 번역을 하겠다는 것이 또한 『표준』과 『새번역』 머리말에서 제시한 원칙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대조하고 분석한 것들을 살펴보면, 임의로 첨가되거나 삭제된 것들, 존대법이 맞지 않는 것들, 인용문의 형식이 서로 다른 것들, 병렬 본문에 동화된 표현들, 시제나 태가 맞지 않는 것들, 같은 단어인데도 다르게 번역된 것들, 부호나 띄어쓰기를 다르게 한 것들 대부분은, 우리의 어법과는 무관하게, 일치의 기준을 정하지 않아서 생긴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은 어떤 기준을 정하여 일치시켜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준』과 『새번역』이 우리말 어법에 맞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또 획일적 일치보다는 다양한 표현들을 살리려고 한 점은 큰 장점이자 공헌이라 하겠다. 『표준』과 『새번역』에서는 똑같은 그리스어 단어 하나를 네 가지 이상의 다양한 표현들로 번역하여 아름다운 우리말의 진가를 보여 준 경우들도 있었다. 이런 점은 더욱 발전시켜서, 앞으로 더욱 우리 어법에 맞는 자연스럽고도 아름다운 표현들을 찾아내어 다양하게 번역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말 표현에 거슬리지 않는 것 못지 않게 신학적 해석에 거슬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리’나 ‘오실 그분’ 같은 단어들은 단순히 그 단어 이상을 신학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른 단어들로 교체하려고 할 때에는 그 신학적 의미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30) 김재성, “공관서 병행 본문 번역에서 형식 일치와 내용 동등성의 조화”, 227.

그런 점에서 『새번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내용 동등성과 형식 일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목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용 동등성과 형식 일치 말고도 신학적 일치라는 목표까지 더하여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새번역』을 『개역』과 비교해보면, 훨씬 더 우리 어법에 잘 맞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내용 동등성의 번역이라 할 수 있다. 『새번역』을 『공동』과 비교해보면 그리스어 본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틀을 훨씬 더 잘 간직하고 있는 형식 일치의 번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 동등성과 형식 일치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내용 동등성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다. 그리고 신학적 내용과 일치를 이루는 작업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 가지 과제를 해 나가는 것은 개개의 번역자들에게 맡기기는 어려운 일인 것으로 보인다. 공관서 병렬 본문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일치시키고 또 다양한 우리말 표현들을 수용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논의할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 전문가들 가운데는 우리말 전문가, 신학과 그리스어를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신학 전문가 그리고 번역 이론과 성서 본문의 과거 번역의 역사를 담당할 성서번역 전문가가 꼭 들어가야 할 것이다. 공관서 병렬 본문 대조 작업이 끝나면 그 결과를 병렬 본문 외의 본문에도 반영하는 2차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Keywords)

성서번역, 형식 일치와 내용 동등성, 공관서 병행 본문, 표준새번역, 새번역.

Bible Translation, Formal Correspondence and Dynamic Equivalence, Parallel Texts of the Synoptic Gospels, *The New Korean Standard Version*, *The Revised New Korean Standard Version*.

<참고문헌>(References)

- 강정희, “외국인과 해외동포를 위한 성경 번역에 대한 제안”, 『제4회 성서 번역 워크숍』(자료집),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9, 266-286.
- 김재성, “공관서 병행 본문 번역에서 형식 일치와 내용 동등성의 조화”, 『제4회 성서 번역 워크숍』(자료집),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9, 208-228.
- 김창락,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은 어떤 성경인가?”, 『성서읽기 역사읽기』,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9, 165.
- 나채운, “표준새번역에 대한 바른 이해(I)”, 『기독교사상』(1993, 10).
- 나채운, 『우리말 성경연구』, 서울: 기독교문사, 1990.
-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서울: 두란노, 1996.
- 민영진, “성경 새번역 이렇게 하였다”, 『월간목회』(1991, 1) 169-174.
- 민영진, “우리말 성경의 번역 성격과 대표적인 번역 이론들”, 『그 말씀』(1993, 8), 118-125.
- 민영진, “표준 새번역은 원문을 우리 어법에 맞게 표현한다”,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 해설』(자료집),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170-176.
- 민영진,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의 번역원칙을 말한다”, 『월간 목회』(1991, 11), 183-188.
- 전무용, “성서 번역자가 알아야 할 한국어 문법”, 『성경원문연구』 15(2004), 59-81.
- 전무용, “한국어 성경의 대명사 고찰”, 『성경원문연구』 19(2006), 96-121.
- 전무용,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의 우리말을 다듬으면서”, 『기독교사상』(1993, 2), 51-65.
- 전혜영,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I, II)”, 『기독교사상』(1993, 3, 4) 98-110, 146-162.
- 조지윤, “성서 번역자 양성 과정을 위한 제안”, 『성경원문연구』 12(2003), 121-140.

<Abstract>

Harmony of Formal Correspondence and Dynamic Equivalence in Translating Parallel Texts of the Synoptic Gospels

Prof. Jae-Sung Kim
(Hanshin University)

While the *Korean Revised Version* adopted the principle of formal correspondence as its translation principle, the *Common Translation* adopted the principle of dynamic equivalence. *The New Korean Standard Version* did not selected one alternative of them but tried to maintain harmony between formal correspondence translation and dynamic equivalence transl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how much it is successful to maintain such a harmony in the *New Korean Standard Version (NKSV)* and the *Revised New Korean Standard Version (RNKSV)*, especially in translating parallel texts of the synoptic Gospels.

For this purpose, we will first examine how *NKSV* and *RNKSV* translated some correspondent Greek texts into some diverse and different Korean expressions, contrasting the texts of the synoptic Gospels. And we will examine why such different expressions should be made in process of translation and if those expressions are necessary for Korean usage or not.

For this analysis, we will examine 1) phrases which added or omitted some words, 2) phrases which are different in honorific expressions, 3) phrases which are different in forms of quotation, 4) phrases which are assimilated to parallel text, 5) phrases which are different in tense and voice, and 6) phrases where comma either omitted or added, the exclamation mark or question mark or space are used or not etc. Then we will propose a new way for further translation through this analysis.